

‘교비 횡령’ 혐의 게임고 설립자 부부 항소심도 실행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

아내와 지인, 제자 등을 학교 교직원으로 둔갑시키고 학교 교비로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이하 게임고) 설립자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고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에 처해졌다.

정씨는 “아내와 지인이 실제 학교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횡령한 게 아니다”며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교비로 급여 지급 징역2년 선고 원심 유지

특히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다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정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정씨의 아내이자 게임고 학교법인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인 이씨를 게임고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씨에게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1억3,700여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부부는 이미 기숙사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과 부사감 뿐 아니라 야간에 학교를 관리하는 2부 교감까지 있어 추가로 ‘기숙사 생활관장’이란 직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성순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아내 이씨뿐 아니라 지인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순학원의 재산이 부족해 게임고 설립 당시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6)에게 출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미 학교 기숙사 설비는 외부업체에서 관리해 별도의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임명하고 김씨에게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씨는 학교 인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자 황모씨(40)를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채용했다고 서류를 꾸며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업무와 관련해 중국 소재 게임업체에 취업해 출국한 상태였다.

정씨는 성순학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표모씨(65)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4,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완주군 운주면 소재 게임고의 설립일인 2004년 9월1일부터 게임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및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 정씨의 아내 이씨는 2004년 9월1일부터 2010년 1월6일 해임될 때까지 성순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정씨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50만원을, 지난해 1월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의 아내 이씨는 2010년 5월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징벌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민형 기자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노조 부분파업

민주노총이 27일 공공부문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노조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나흘 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전주시 시내버스 5개사 중 성진여객과 전일여객, 제일여객 등 3곳이 참여했다.

이에 전주시 시내버스 391대 가운데 160대(40%)가 이날 오후부터 부분파업에 참여해 시민들의 퇴근길 불편이 가중됐다. 한편 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노조와 파업 기간 단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축제 열린다

내달 7일~9일까지

풍성한 가을을 맞아 전주시민 모두가 즐기는 평생학습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제11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한다.

‘학습,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에는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49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와 48개 동아리 공동체 등 9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홍보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착한사람들과 삼천동 야(야)한 플라미켓, 전북여성자원센터, 평화동 해피아이넷, 청소년CBO카페 ‘꿈드림’ 등 5개 단체에서 학습장터마당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전주시, 주거복지실현 ‘맞손’

23개 기관 참여 주거복지네트워크 협력 협약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기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강미현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 등 23개 주택관련 민간 대표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기관들은 협약식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자원 연계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및 제안 △주거복지에 대한 공동화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 등을 위한 참여단체간 상호 업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LH 등 민·관 공급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자

원연계, 자원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주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문제 파악, 의견개진, 정책개발에 참여기로 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는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재 기자



“편히 영면하십시오” 하고 있다.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전북도와 농민회 전북도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가운데 27일 송하진 도지사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

전주시, 지역 중기 성장 맞춤형 지원... ‘성장사다리사업 이(異)업종 융합산업 포럼’ 개최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27일 송천동 드보네 하이든홀에서 2016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및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사다리사업 제2회 이(異)업종 융합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이(異)업종 융합산업 포럼은

올해 전주시가 추진한 ‘강소향토기업 육성 성장사다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업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과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즐거워, 세상이 행복해진다’를 주제로 한 금강이벤트 한산준 대표실장의 초특강에 이어, 성

장사다리 참여기업들에 대한 홍보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 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간담회와 이(異)업종간 협업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은 지역 내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사다리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올해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입해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성장 가능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